

지난주 예배 출석 및 모임 통계

Statistics and Worship Attendance Last Week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1부	스프링	83	862
	2부	스트림	147	
	3부	리버	171	
	4부	오션	171	
	5부	라이프하우스	107	
교회 학교 Sunday School	영유아부	3층 예배실	56	1040
	유치부	3층 예배실	127	
	유년부	5층 예배실	29	
	소년부	7층 예배실	30	
	청소년부	5층 예배실	54	
평일학교			평동캠퍼스	26

주일 오후 예배 Sunday Afternoon Service	110
수요일 예배 Tuesday Night Service	2층 대예배실
토요일 기도회 Saturday Night Prayer	117

실버스쿨 Silver School for the Elderly	5층 예배실 (화) 오전 9:30	한시적 연기
직장인 예배 Wednesday Worker's Service	6층 제물실 (수) 오전 12:00	매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Early Morning Service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함께
	110	119	108	122	120	133	632

지난주 헌금 현황

지난주 헌금 총액	19,674,002 원	지난주 지출 총액	19,857,155 원
헌금 총액 누계	1,235,840,954 원	지난주 지출 누계	1,235,746,420 원
지지잔 수 잔액	277,687 원	지 잔 수 잔 액	94,534 원

2026년도 등록 새가족

순번	이름	주 소	신교회	인도자	등록일	순번	이름	주 소	신교회	인도자	등록일
11	김오영	신앙공동체	스스로	3월 9일	22	송오지	신앙공동체	스스로	5월 24일		
12	김오숙	신앙공동체	스스로	3월 9일	23	송오지	신앙공동체	스스로	5월 21일		
13	김오현	신앙공동체	스스로	3월 15일	24	안오현	신앙공동체	스스로	6월 21일		
14	이오은	신앙공동체	스스로	4월 19일	25	김오식	신앙공동체	스스로	6월 21일		
15	정오정	신앙공동체	스스로	4월 26일	26	송오지	신앙공동체	스스로	7월 12일		
16	박오인	신앙공동체	스스로	4월 26일	27	김오신	신앙공동체	스스로	7월 12일		
17	이오영	신앙공동체	스스로	5월 3일	28	사오현	신앙공동체	스스로	8월 23일		
18	이오영	신앙공동체	스스로	5월 3일	29	이오현	신앙공동체	스스로	8월 23일		
19	이오영	신앙공동체	스스로	5월 17일	30	김오현	신앙공동체	스스로	8월 16일		
20	조오영	신앙공동체	스스로	5월 17일	31	안오현	신앙공동체	스스로	8월 23일		
21	영오성	신앙공동체	스스로	5월 24일	32	김오성	신앙공동체	스스로	8월 23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국내신교 [4] Local Mission
상주교회 (주용은)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예담교회 (조원혁)
주안교회 (엄영섭)

해외신교 [3] Overseas Mission
대만 (김성문/조숙훈)
키르기즈스탄 (정지훈)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총회북한선교
나사렛대학교

각교회 전도목표

전도목표	52	52	52	52	52
누 계	2	19	6	1	1

상암동 뉴스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026년 하반기 두이레 특별 새벽기도회**
■ 일시 : 9월 7(월)~19(토) 오전 5:50, 총 12일
■ 주제 : '나그네의 노래' :
눈물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시몬으로
■ 강사 : 신민규 담임목사
- 제 27회 이웃사랑 나눔바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9월 19(토)일
■ 바자회 선반매 안내
1) 간장 1L, 10,000원 (선반매)
2) 515 남선교회 : 흥성 한우 국거리, 불고기
3) 569 남선교회 : 고사리, 허니버
4) 604 남선교회 : 광천김
5) 858 남선교회 : 마스코백
6) 514 여선교회 : 양념채볶, 찹쌀
7) 624 여선교회 : 풀, 돼지갈치구부
■ 헌옷 기부 요청
집에서 입지 않는 옷을 깨끗이 세탁하여 교회
1층 103호(우복함)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교회 회화단 모임**
■ 일시 및 장소 : 9월 6일, 5층 대예배실
■ 8월 정기 실행계획회
-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1:30 / 502호
■ 협회차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3:30 / 501호
- 특수모임 동아리 정기모임 안내**
■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 오후12시30분
■ 교회 6층 오라비들
■ 안건 : (헨리 니우웬의 공동체)에 대한 독후감강송 공유.
다음 도서 선정

- 8월 정기 실행계획회**
-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1:30 / 502호
■ 협회차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3:30 / 501호
- 교회 모임 안내**
-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1:30 / 502호
■ 협회차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3:30 / 501호
- 특수모임 동아리 정기모임 안내**
■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 오후12시30분
■ 교회 6층 오라비들
■ 안건 : (헨리 니우웬의 공동체)에 대한 독후감강송 공유.
다음 도서 선정
- 교회 청소년사 (각 신교회) 9월 5일** 남선교회(604) 여선교회(624) 9월 12일 남선교회(658) 여선교회(658)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강의실))
[2부 안내위원]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보달) 박민선 김진순
[3부 안내위원] (1층) 김광동 조필성 (2층) 이상애 (보달)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휘
주차안내사 조정환 교회차량통행 나침골 순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호진

구분	금 주	다음 주	교역자	봉 헌 위 원	구분	금 주	다음 주	교역자	봉 헌 위 원
1부	김순진 장로	민병석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기희 최금남	1부	김 순 진	민 병 석	송 두 성	안 순 자	유 희 숙
2부	김순진 장로	민병석 장로	최창수 장로	김경자 김은혜 신정화 신화옥 최광숙 이경희	2부	김 순 진	민 병 석	최 창 수	김 경 자
3부	민병석 장로	최창수 장로	김경자 김은혜 신정화 신화옥 최광숙 이경희	3부	김 순 진	민 병 석	김 경 자	김 은 혜	신 정 화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묵상예배(오전7:30)	2부 전통예배(오전9:00)	3부 은혜예배(오전10:30)
1st Service(Meditation)	2nd Service (Traditional)	3rd Service (Family)
인도 &말씀/권수용 목사	인도:유익선 목사 찬양:신민규 담임목사	인도:한태희,김정숙사 말뚝:신민규 담임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 상 광 고	영 상 광 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 도 자 President	인 도 자 President
찬 송 Hymn	찬 송 찬송가 25장 (백과사전 12:30)	찬 송 찬송가 25장 (백과사전 12:30)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 송 찬송가25장 (백과사전 12:30)	성서기도 응답기도 (심방제직)	성서기도 응답기도 (심방제직)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학개 2:10-19	성경봉독 출애굽기 17:2, 4, 7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설 교 자
말 씬 Message	오늘부터는 내가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복을 주리라
찬 송 Hymn	행복 (화려하지않이요)	행복 (화려하지않이요)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설 교 자
배 회 송 Closing Hymn	반 주 자	반 주 자
♣ 표가 있는 순서는 품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늦은 비 예배(오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수요일 예배(저녁 7:30) Wednesday/night worship
· 기 도 장인숙 권사 (다음주: 홍형기 권사)	· 성 경 스헤미야 9:7
· 말 씬 늦은 새벽부터 늦은 새벽까지 다 파트로 (영8:4-13)	· 말 씬 이브림이 받은 축복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예 배 봉 헌 담 당 (Usher team)					다음주 예배 공동기도담당	
구분	금 주	다음 주	봉 헌 위 원		구분	기 도 위 원
1부	교 역 자	교 역 자	교역자		1부	인 도 자
2부	김순진 장로	민병석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기희 최금남		2부	차주섭 장로
3부	민병석 장로	최창수 장로	김경자 김은혜 신정화 신화옥 최광숙 이경희		3부	김순진 장로

생명의 말씀 신민규 목사

Message Dr. Shin Min-Gyoo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기 17:2, 4, 7

설 교 노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높이셨다가 낮추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의 중심 우로부터 가나안으로, 다시 애굽으로, 그리고 후손들은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만 고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단하시며 믿음을 세우십니다.

출애굽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 모세를 세워 열 제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곧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애굽이 풍요의 땅이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공급하시며 참된 주인이 하나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의 성품 때문이었습니 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또한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여 질서를 지켰고, 성경은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내가 하겠습니까"**라는 큰 결심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르비딴에서 물이 없자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을 시험했 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백성을 살라셨습니다. 어려운 이마엘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신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과 함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원망보다 먼저 기도하 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세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든 재판을 혼자 감당하는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등을 세워 일을 분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 권원을 받아들였습 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족과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히 듣는 귀가 하나님 의 인도를 받는 통로입니다.

넷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모세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그를 그저 주종소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며, 사람을 굴복할 여지는 성품입니다. 전리에는 분명히 서되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대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십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야만으로 순종하고,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지혜와 사람 을 품는 온유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자리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며,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 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믿을 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민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높은 바위 위에서 매달라 가는 바다게가 있었습니 다. 바다로 돌아갈 힘은 충분했지만, 불과 10미터 앞 의 바다로 움직이지 않고 파도가 다시 밀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면 바다게는 결국 물라 죽고 말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넣는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파도가 나를 구해 주기를 기다리다면, 원하는 기회는 오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과 인내는 다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인내는 소망을 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임산부의 기다림은 겉으로는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함차게 자랍니다. 십자가 위 의 예수님도 무력해 보였지만, 그 죽을 뒤에는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게으른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행동하는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강림후 14주 ● 2026년 8월 30일 (제 73년 35호)



상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행 3:1)
'가뭇한 땅을 닦았던 땅, 인력과 생명이 변화되는 교회'

2026년 하반기 두이레특별새벽기도회

“나그네의 노래”

눈물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시몬으로

(시편 120~134)

일시 : 2026년 9월 7(월)~19(토)
오전 5:50 (총 12일)
강사 : 신민규 담임목사
장소 : 상암동교회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Love, Faith, and Hope.



신민규 담임목사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경회 상암동교회)
Rev. Dr. Min-Gyoo Shin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Church Staffs (Associate Pastors, Missionaries, Lay Elders, and Lay Workers)

유대선 권임규 담임목사 유종환 권수용 강동태 이광민 한혜나 박영림 김은성 김진국 류득림 ■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정지훈 ■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덕 ■ 교육사 : 문은경 김순진 민병석 최창수 도명택 권병수 정옥수 신승훈 조유만 위유만 김하동 임재철 이재명 장석준 권태환 최원철 ■ 은퇴장로 : 박순영 이종태 박순재 차주섭 송원희 유은식 강상대 김무일 박영애 양철호 유성용 유종훈 이두복 강영호 ■ 권리사 : 강진숙 (임아남) 최혜정 (함필루아) 소정옥 ■ 방송·영상 : 김남식 윤지환 조병수 김기호 홍홍복 문정민 (22사)조성민 (1부)최희나 (2부)이연주 (3부)권문선, 김승희 (활동캠퍼스이전하) (새벽)박민희 소재경 소정옥

Worship Services	교역자와는 길 Map & Directions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09:00 2층 본 당
주일 3부 예배	주일오전 10:30 2층 본 당
수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12:30 3층 대예배실
수요일 오후 예배	주일오전 02:30 2층 본 당
목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수요일 오후 예배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토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월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화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수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목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금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토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일요일 기도회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상암동교회 (상암동 138-24) 상암동 1638) 사무실: (02) 309-1996 www.sangamdong.org
영양수영장 (신동읍 동강리 838) : 양정숙사 최두희 목사 활동캠퍼스 (대곡구 동곡로 42-98) : 담임목사 권수용 목사

エジプトから荒野へ

出エジプト記 17:2, 4, 7

聖書は神様が御自身の身を高めたり低くされたり、再び立てられる役事を繰り返されます。アブラハムは文明の中心のウルからカナンに、再びエジプトに、そして子孫は荒野に導かれました。ダビデも牧童から王になりましたが、獻儀による罪愆を受けし悔い改めを通して再び神様の前に立ちました。神様はわたしたちの人生にも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導かれ、信仰を強めてくださいまし。

出エジプトの役事もやはり同様に繰り返す。イスラエルは神様の民ですが、ファラオの奴隷に導かれました。神様はモーセを立てられ 10 の災いから彼らを救われ、すぐにカナンではなく荒野に導かれました。人の目にはエジプトは豊穡な土地がありますが、荒野には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神様の目にはエジプトはこの世であり、荒野は神様を学ぶ訓練場です。荒野で神様はマナとウズ、石の水を供給され本当の主人は神様であることを教えられました。それで荒野は捨てられた所ではなく、神様だけを頼るようになる恵みの場所です。神様がモーセを大きく用いられた理由は、彼の信仰の性業によるものです。聖使の皆さん、モーセは神様から見たらどのような人だったのでしょうか？

第一に、モーセは「**従順**」の人でした。モーセは神の召命に対して、最初は何度も拒みましたが、ついに従いました。また、義父イテロに許しを求めて秩序を守り、聖書は繰り返し「**主が命じられたとおりに行った**」と証言しています。従順の基準は自分の都合ではなく、神の命令です。信徒は「**私がやりませう**」という大きな決心よりも、「**これは神の御心です。アーメン**」という大きな信仰を持つべきです。

第二に、モーセは「**祈り**」の人でした。レフィディムで水がなかったとき、民はモーセを恨み、神を試みました。しかしモーセは人と争うのではなく、神に叫び求めました。神は岩から水を湧き出させ、民を生かされました。続くアマレクとの戦いでも、コシュアは戦場で戦い、モーセは山の上で祈りました。神は、私たちの責任ある行動とともに、祈りを通して働かれます。危機の中で、まず不平を言うのではなく、祈る人となるべきです。

第三に、モーセは「**知恵**」の人でした。イテロは全ての裁判を 1 人で行っていたモーセに、千人隊長や百人隊長などを立てて仕事を分担するように暗示しました。モーセは自分の権威を振りかざすことなく、その勧めを受け入れました。神は時に、家族や同僚者、信仰の仲間を通して知恵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謙虚に耳を傾ける姿勢こそ、神の導きを受け取る通路となるのです。

第四に、モーセは「**柔和**」な人でした。ミリアムがモーセを批判して神様の懲戒を受けたとき、モーセは復讐せず「**神様、彼女を癒してください**」と祈りました。柔和さは強いことではなく神様の前に従順に従う心であり、人を傷れに思いう業です。真理にしっかりと立ち、人にはやさしく接することが聖徒の姿です。

愛する聖徒の皆さん、エジプトから荒野へ向かう道は、失敗の道ではなく、神の元に立ち返る道です。神は荒野を通して、私たちの真の主人が誰であるかを悟らせ、ただ神だけに頼る信仰を築いてくださいます。だからこそ、私たちは大きな「アーメン」をもって従い、危機の中で祈り、勧めを聞き入れる知恵と、人を包み込む柔和さを求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日も神は、荒野のような場所にいる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ます。私たちの手ではなく神が備え、私たちの力ではなく神が生かし、私たちの知恵ではなく神が答えてくださいます。ゆえに、「**彼がわたしたちにばわるなら、わたしたは彼に答えよう**」という約束を握りしめ、信仰をもって歩む聖徒となることを、主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アーメン。

(번역) 이가와티 집사

From Egypt to the Wilderness

Exodus 17:2, 4, 7

The Bible repeatedly shows us how God exalts His people, then humbles them, and then restores them. Abraham was led from Ur, the center of civilization, to Canaan, then to Egypt, and his descendants were later led into the wilderness. David also went from shepherd to king, but through pride he received discipline, and through repentance he stood before God again. God also trains our lives through such processes and builds our faith.

The Exodus follows the same principle. Israel was God's people, but they became slaves to Pharaoh. God raised up Moses and delivered them with ten plagues, and then immediately led them not to Canaan but into the wilderness. In human eyes, Egypt is a land of plenty and the wilderness is a barren wasteland, but in God's eyes, Egypt represents the world, and the wilderness is the training ground where we learn about God. In the wilderness, God supplied manna, quail, and water from the rock, teaching them that the true Lord is God alone. Therefore, the wilderness is not a place of abandonment but a place of grace that makes us rely only on God. The reason God used Moses greatly was because of his character of faith. Beloved saints, what kind of person was Moses in God's sight?

First, Moses was a man of obedience. At first, he refused God's call several times, but eventually he obeyed. He also kept order by seeking permission from his father-in-law Jethro, and the Scriptures repeatedly testify that **"he did as the LORD commanded."** The standard of obedience is not my circumstances, but God's command. Saints should have not a great resolve of **"I will do it,"** but a great faith that says, **"It is God's will. Amen."**

Second, Moses was a man of prayer. At Rephidim, when there was no water,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and tested God. But Moses did not argue with the people; he cried out to God. God brought water from the rock and saved the people. In the battle against Amalek, Joshua fought while Moses prayed on the hill. God works through prayer alongside our responsible actions. In times of crisis, we must be people who pray first rather than grumble.

Third, Moses was a man of wisdom. Jethro advised Moses to appoint leaders of thousands, hundreds, etc., to share the burden of judging all the people. Moses did not assert his own authority but accepted the counsel. God sometimes gives wisdom through family, co-workers, and people of faith. A humble ear that listens is the channel of God's guidance.

Fourth, Moses was a man of meekness. When Miriam slandered Moses and received God's discipline, Moses did not take revenge but prayed, **"O God, please heal her."** Meekness is not weakness but a heart that submits to God and shows mercy to people. It is the mark of a saint to stand firmly for the truth yet deal gently with others.

Dear saints, the road from Egypt to the wilderness is not a path of failure but a way back to God. Through the wilderness, God makes us realize who our true Lord is and builds our faith to rely only on Him. Therefore, let us obey with a great "Amen," pray in crises, seek wisdom to accept counsel, and cultivate meekness that embraces others. Today, God guides us even in wilderness-like places. It is not our hands that supply, but God; not our strength that saves, but God; not our wisdom that answers, but God. So hold fast to the promise: **"He will call upon Me, and**